

# 삼성이 키운 사내벤처 어느새 34곳... 일자리창출 '한 몫'

**사내벤처육성 프로그램 'C랩'**  
우수 과제 3개 스타트업 창업 지원  
아그와트·캐치플로우·포메이커스  
2015년 도입 이래 매년 꾸준히 발굴

삼성전자가 사내벤처 육성 프로그램인 'C랩'의 3개 우수 과제의 스타트업 창업을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삼성전자는 지난 2015년 8월 처음으로 C랩 스핀오프 제도를 도입한 이래, 매년 꾸준히 우수한 C랩팀을 발굴해 스타트업으로 독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현재까지 배출된 스타트업은 총 34개다.

이번에 스타트업으로 출범하는 3개 팀 가운데 아그와트는 생활가전사업부 개발자들의 축적된 경험과 기술을 바탕으로 스마트 가전 기술을 활용해 가정에서 간



삼성전자 C랩을 통해 창업에 나서는 3개 과제 참여 임직원들이 한데 모여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삼성전자

편하게 채소를 재배할 수 있는 '플랜트박스'를 개발했다. 플랜트박스는 소형 냉장고와 유사한 형태로, 기르고 싶은 채소의 씨앗 캡슐을 재배기에 넣으면 씨앗의 종

류에 따라 빛, 온도, 습도, 공기질 등 최적의 환경이 자동으로 설정돼 쉽게 채소를 재배할 수 있으며, 앱을 통해 모든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제어할 수 있다.

캐치플로우는 초소형 포터블 지향성 스피커 'S레이'를 개발했으며 올 1월 CES 2018에서 선보여 호평을 받은 바 있다. 캐치플로우는 기존 지향성 스피커의 기술적 한계를 극복했고 시중에 나와 있는 제품 대비 크기를 획기적으로 줄였다.

포메이커스는 데이터 기반으로 사용자 인터뷰가 필요한 기업에게 적합한 사용자를 연결해주는 리서치 플랫폼 '앱비'를 선보였다. 설문 조사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조사 참여자 선정이 중요하고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데, 앱비는 앱 사용패턴을 분석해 데이터 기반으로 기업에 적합한 인터뷰 대상자를 추천해 보다 신뢰도 높은 조사 결과를 얻을 수 있다.

한편, C랩 출신 스타트업들도 지속적으로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

스마트한 베이비 케어 솔루션 업체인 ㈜모잇은 독립한지 1년 만에 제품을 출시

한다. 6월 11일부터 온라인 오픈마켓을 통해 아기의 대·소변 여부를 알려주는 기저귀 센서를 판매하며, 곧 전국 유명 백화점으로 유통을 확대할 계획이다.

간단한 허밍으로 작곡을 도와주는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한 ㈜클랩 컴퍼니는 6월부터 글로벌 시장에 진출한다. 미국 버클리 대학교가 운영하는 액셀러레이터 프로그램인 '스카이텍'에 선정돼 미국 현지에서 다양한 글로벌 스타트업들과 경쟁하고, 곧 미국 법인을 설립하여 현지 투자 유치도 진행할 예정이다.

웨어러블 360도 카메라를 만드는 ㈜링크플로우는 보안용 장비 시장에서 큰 호응을 얻으며 일본의 한 전문 업체로부터 투자 유치를 앞두고 있다. ㈜링크플로우는 창업한지 1년 5개월 만에 기업 가치가 20배 이상 상승하는 등 가장 빠른 성과를 보이고 있다.

/구세운 기자 yuni2514@metroseoul.co.kr



LG전자 모델이 선명한 화질과 투명한 디자인이 장점으로 상품에 대한 정보를 실물과 함께 효과적으로 전시하는 고급 인테리어 요소로 활용할 수 있는 '투명 올레드 사이니지'를 소개하고 있다. /LG전자

## LG전자, 사이니지 혁신제품 대거 선보

상업용 DP전시회 '인포콤 2018' 참가

LG전자가 6일(현지시간)부터 사흘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미국 최대 상업용 디스플레이 전시회 '인포콤 2018'에 참가한다고 6일 밝혔다.

LG전자는 이번 전시회에서 올레드 사이니지부터 초박형 베젤의 비디오월, 투명 LED 필름, 독특한 비율의 울트라 스트레치까지 앞선 기술력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상업용 디스플레이 제품군을 글로벌 시장에 소개한다.

LG전자는 올해 주요 전시회를 통해 독보적인 올레드 기술력을 선보이고 있다. 대표적인 제품인 '오픈 프레임 올레드 사이니지'는 곡면 디자인을 보다 자유롭게 구현할

수 있어 물결치는 듯한 조형미를 살릴 수 있다. '투명 올레드 사이니지'는 선명한 화질과 투명한 디자인이 장점으로, 상품에 대한 정보를 실물과 함께 효과적으로 전시하는 고급 인테리어 요소로 활용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이질감을 최소화하면서 여러 장을 자연스러운 하나의 큰 화면으로 설치할 수 있는 베젤 두께 0.6mm의 비디오월, 1.5mm 픽셀피치로 실내에서도 선명한 화질을 구현할 수 있는 LED 사이니지, 유리 등에 붙여 손쉽게 디지털 사이니지로 활용할 수 있는 컬러 투명 LED 필름, 58대 9와 32대 9라는 고유의 화면비로 세로나 가로로 길게 설치할 수 있는 울트라 스트레치 등 차별화된 제품들을 전시한다.

/구세운 기자

## KT, 필리핀 정부에 '스마트 보라카이' 제안

ICT 발전 위한 협력방안 논의

KT가 세계적인 관광지 보라카이를 정보통신기술(ICT) 솔루션을 통해 모바일 인터넷 이용이 편리한 섬으로 탈바꿈시키는 '스마트 보라카이(Smart Boracay)' 프로젝트를 필리핀 정부에 제안했다.

KT는 5일 서울 중구 KT광화문빌딩 이스트(East)에서 황창규 회장을 비롯한 경영진이 필리핀 정보통신부 장관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들을 만나 필리핀 ICT 발전을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했다고 6일 밝혔다.

황창규 회장은 필리핀 정부 장관·차관들에게 스마트에너지, 보안 등 ICT를 기반으로 KT가 보유한 혁신 솔루션을 소개했다. 이와 함께 6개월간 환경 복원에 들어간 보라카이 섬을 복원하는 프로젝트와

연계해 보라카이에 ICT 솔루션을 적용하는 '스마트 보라카이' 구축을 제안했다.

KT는 보라카이에 한국의 앞선 ICT 혁신기술이 활용되기를 희망했다. 공공 와이파이와 지능형 CCTV를 항구 등에 적용하면 관광객들이 보다 편리하게 모바일 인터넷을 이용하고, 보다 안전하게 여행을 즐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태양광 에너지 활용하는 방안과 KT의 스마트에너지 솔루션 KT-MEG을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필리핀 두테르테 대통령은 임기가 끝나는 2022년까지 약 180조원 규모의 인프라 투자를 추진하며 경제부흥을 추진하고 있다. KT는 보라카이 복원 프로젝트 참여를 시작으로 ICT산업 발전의 주요 파트너가 되기 위해 정부 및 민간기업의 주요 관계자들과 협의를 진행 중이다. /김나인 기자

## 애플 'iOS12' 안정화 초점... 혁신 빠지지 않았다

〈운영체제〉

세계개발자콘퍼런스 2018

성능 개선한 새로운 운영체제 공개  
미모지·AR키트·시리숏컷 등 혁신  
SE2 등 하드웨어 제품 발표는 없어

애플이 4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열린 세계개발자콘퍼런스(WWDC) 2018에서 새 모바일 운영체제 'iOS12'를 발표했다. 애플이 그동안 지적되었던 운영체제 안정성을 강화하고 새로운 혁신영역을 개척하려는 의지를 나타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애플의 새 모바일 운영체제인 'iOS12'는 성능면에서 이전 버전보다 대폭 개선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애플은 앱 실행속도에서 40%, 키보드 구동속도는 50%, 카메라 작동속도는 70% 빨라졌다고 발표했다. 그동안 많은 기능을 추가하느라 속도저하와 잦은 버그를 경험한 사용자들이 요구한 사항을 받아들여 기본성능 개선과 안정화로 화답했다.

애플의 장기인 혁신성을 넣는 것도 잊지 않았다. 사용자 표정을 읽어 미리 만든 이모티콘에 실시간 적용하던 '애니모지' 기능을 더욱 진화시켰다. 얼굴을 직접 이모티콘으로 만드는 '미모지' 기능은 사용자 표정은 물론, 말할 때 혀 움직임을 인식해서 반영한다. 삼성이 갤럭시S9에 탑재한 'AR 이모지'보다 진보된 소통 기능이다.

더욱 강화된 증강현실(AR) 기능은 카메라로 비춘 사물의 크기와 거리도 측정



크레이그 페더리기가 애플 수석부사장이 WWDC 2018 행사장에서 iOS12를 소개하고 있다.

/에플 공식 유튜브 영상 캡처

해준다. 이날 소개된 iOS12용 증강현실 파일 포맷 'USDZ'는 여러 앱을 동시에 실행할 수 있고 아이폰 혹은 아이패드 카메라에 보이는 영상 속 특정 지점간 거리를 측정할 수 있다.

이 포맷은 웹에서도 실행할 수 있으며 어도비, 오토데스크, 스케치랩 등을 지원한다. AR 앱을 제작할 수 있는 'AR키트 2.0'에서는 이용자 여러 명이 같은 AR 경험을 즐길 수 있어 앞으로 AR게임에서 다중 플레이가 가능해졌다.

인공지능(AI) 비서 '시리'도 더욱 좋아졌다. '시리 숏컷' 기능을 통해 음성 명령을 사용자 입맛에 맞게 바꿀 수 있다. 또한 다양한 앱을 조합해서 사용자가 원하는 동작을 시킬 수 있다. '스크린 타임'은 사용자가 모바일 기기 내에서 어떤 기능을 얼마동안 사용했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기능이다. 이 기능을 통해 보호자가 자녀의 모바일 사용현황을 확인하며

사용시간을 통제할 수 있다.

iOS12는 체감성능을 올려서 기본적인 사용자 만족도를 올리고 사용자 소통기능을 진화시켜 혁신성을 드러냈다. 증강현실 기능 강화를 통해 관련 산업계에 새로운 활로를 열어주려는 시도를 했다. 여기에 사회문제인 휴대폰 중독을 억제하기 위한 '앱 제한' 기능을 넣어 사회적 역할도 일부 수행했다. 모바일 업계의 '트렌드 리더'임을 다시 한번 확인받으려는 애플의 지향점을 보여주는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이날 발표 전에 기대되었던 하드웨어 제품 발표는 없었다. 새로운 아이폰 SE2나 아이패드 프로 3세대, 혹은 새로운 맥북이 나올 것이라는 각종 관측은 빛나 갔다. 행사에서는 모바일 운영체제인 ▲iOS12 ▲워치OS5 ▲tvOS ▲맥OS 모하비 등이 소개되었다. 행사 주체인 개발자를 위한 개발용 소프트웨어 위주로 진행되었다. /안병도 기자 catchrod@

## 환경부, LG하우시스 전 직영매장 '녹색매장' 지정

지속가능한 소비 생활 기여 매장

LG하우시스가 운영하는 전국의 모든 직영 전시매장이 환경부의 '녹색매장'에 지정됐다. 녹색매장이란 방문 고객의 친환경적인 소비생활을 유도하고, 환경친화적인 시설 설치와 매장 운영을 통해 지속가능한 소비 생활에 기여하는 매장을 말한다. 업체들이 신청하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평가해 지정하고 있다.

6일 LG하우시스에 따르면 이번에 '녹

색매장'으로 지정된 곳은 지인스퀘어를 비롯해 전국의 16개 지인(Z:IN) 직영 시장 등 총 17곳이다. 그동안 주로 백화점, 대형마트, 유기농 전문판매점 등이 녹색매장으로 지정된 가운데 인테리어 관련 전시매장으론 LG하우시스가 처음이다.

LG하우시스는 지인스퀘어와 전국 직영 전시장에서 고단열 창호 및 친환경바닥재, 벽지 등 100여개의 환경마크 획득 제품과 14개의 저탄소 인증 제품을 선보이며 친환경 인테리어자재 활성화에 기

여해 왔다.

또 전시장에 녹색제품 인테리어 쇼룸을 별도로 구성해 소비자에게 녹색제품을 적극 알리고 있다. 매장 운영에 필요한 소모품까지도 녹색제품을 사용하고 있다.

LG하우시스는 이번에 녹색매장에 지정된 전국 17개 매장을 시작으로 향후 개설 예정인 지인 직영 전시장 부천점과 리뉴얼 오픈 예정인 부산점, 인천점도 녹색매장에 부합하도록 구성할 예정이다.

/김승호 기자 bada@